

기획 논문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과 진정성 담론의 역설

김성은 _한신대학교

논문요약

청계천 전태일다리 위에 서 있는 흉상과 어린이를 위한 여러 위인전을 보면 전태일에 대한 기억이 기억 투쟁의 단계를 지나 공식적으로 확립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은 전태일에 대한 다양한 문화적 재현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졌으며, 전태일을 진정성의 표상으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한 전태일 담론은 진정성으로 대표되는 담론이다.

진정성 담론은 전태일의 대중화에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재현을 획일화하고 그의 다양한 면모를 가리는 문제를 낳기도 한다. 그러므로 헤게모니 담론이 형성된 후에도 새로운 관점의 대항 기억과 재현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진정성 담론 자체의 역설적 효과가 있다. 진정성은 사실상 텅 빈 기표에 가깝지만 오로지 타자가 평가하는 가치라는 점에서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이용되기 쉽다. 강자에게는 책임 회피의 방패 역할을 하며 약자에게는 증명해야 할 자격 조건으로 강요된다. ‘아름다운 청년’의 진정성이 헤게모니 담론이 된 후, 노동운동가로서 전태일의 대의는 잊히고 ‘진정성의 증명’만이 과제로 남았다.

■ 주요어: 전태일, 기억 투쟁, 재현, 진정성 담론, 진정성의 증명

DOI: <http://dx.doi.org/10.31008/MV.37.3>

1. 들어가며

기억에는 논란이 따른다. ‘기억 투쟁’, ‘기억의 정치’ 같은 개념이 필요할 정도로 다양한 기억들이 끊임없이 충돌한다. 사람들은 은폐와 망각, 선택적 기억 속에서 서로 다른 기억을 내세우며 ‘진실’을 다툰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정치적 민주화 이후 권력에 강요된 기억을 거부하고 오랫동안 머릿속에 담아두기만 했던 기억들을 하나둘씩 얘기하기 시작했다. 4·3, 6·25, 4·19, 5·16, 5·18, 6·10, 4·16 등 암호처럼 보이는 날짜와 사건들에 대하여 기억 투쟁, 기억의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란이 가라앉고 일련의 진실이 드러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기억이 최종 합의에 다다르기란 매우 어렵고 드문 일이다.

국가의 공식 기억과 민중의 사적 기억, 공식 기억과 대항 기억, 단적으로 말해 역사와 기억 간의 투쟁은 지배 세력과 피지배 세력 간의 치열한 정치 투쟁이다(전진성 2006, 453). 그런데 기억 투쟁은 늘 특정한 방식의 재현(representation)을 거치기 마련이다. 기억은 재현과 동떨어질 수 없다. 말하지 못한 기억을 말하는 것은 공식 기억이 부정하고 억압한 과거를 대항 기억으로서 재구성하는 행위이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공식 기억으로 자리 잡은 해계모니 담론을 대체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지배 세력이 기억을 독점할 수 없는 민주화 시대에는 과거에 대한 서로 다른 재현들이 치열하게 경합한다.

한국 사회에서 기억 투쟁, 기억의 정치는 대체로 보수와 진보의 대결

로 비춰지는 경향이 있다. 과거사 진상 규명뿐만 아니라 최근의 건국절 논란이나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갈등, 적폐 청산 문제에 이르기까지 기억 투쟁은 정치적 세력 다툼으로 번지기 십상이었다. 그런데 정부의 공식 기억과 대중의 사적 기억이 비교적 평화롭게 합치하여 공식 기억으로 자리 잡은 경우도 드물게나마 있다. 전태일에 대한 기억이 대표적인 예라 할 만하다. 애초에 은폐되기 어려운 사건이었으며, 사건 당시에도 많은 눈이 지켜보았고, 이후에도 긴 세월을 걸쳐 수많은 노동자와 지식인들이 망각에 맞서 투쟁한 결과다.

2000년대 이후 전태일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리는 인물이 되었고 근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인 중 한 명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한때 판매 금지, 구속을 각오해야 했던 문화적 재현은 오늘날 일상적이고 상업적인 일이 되었다. 평전과 영화에 이어 어린이를 위한 위인전으로도 여러 권이 출간된 상황이므로 전태일에 대한 기억과 재현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일로 여겨진다. 청계천 복원 공사로 생겨난 22개의 다리 중에 평화시장 입구에 있는 버들다리는 2012년 11월 이후 공식적으로 ‘전태일다리’로 불리며, 전태일 흉상이 그 위에 서 있다. 한국 사회에서 전태일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국민에게 두루 존경 받는 보기 드문 인물이 되었다.

사회과학에서 기억 연구는 기억 투쟁의 일환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제주 4·3 사건(김영범 2003; 권귀숙 2006 등), 한국전쟁(김동춘 2000; 이임하 2010 등), 5·18 광주민주화운동(최정운 1999; 정근식 2005; 2007 등)에 대한 여러 연구는 대항 기억을 역사화하려는 투쟁의 성격을 지녔다. 그런데

전태일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과거의 기억 투쟁을 성찰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정현백 2010; 임송자 2010; 신병현 2011; 신형기 2014; 박숙자 2015; 김원 2015 등). 다양한 문화적 재현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연구자가 기억 투쟁의 전면에 나설 이유를 찾기 어렵다. 다만 기존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전태일에 대한 기억이 제도적, 공식적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억과 재현은 충분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억에 최종 합의란 존재하기 어려우며 기억 투쟁에는 끝이 없다. 특정한 기억이 국가의 공식 기억으로 자리 잡는다고 해도 재현은 계속된다. 전태일에 대한 기억과 재현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이 전태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1970년 이후 전태일 재현이 다양하게 이어진 가운데, 어떠한 담론이 사회적으로 구성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1990년대에 형성되어 현재까지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전태일 담론을 ‘진정성 담론’으로 규정한다. 진정성 담론의 형성 과정과 헤게모니 효과를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앞으로 어떠한 기억과 재현이 대항 담론으로서 추가되거나 보완되어야 할지 논의할 수 있다.

전태일 담론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시민사회의 대표적 공론장인 일간지 기사를 통해 전태일에 대한 기억과 재현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본다(2절). 이어서 사회운동 영역에서 노동자와 지식인의 전태일 재현과 『전태일 평전』,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적 재현에서 헤게모니 담론의 구성 과정을 살펴본다(3

절). 마지막으로 전태일에 대한 진정성 담론의 특성과 효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4절).

2. 기억 투쟁의 전개와 재현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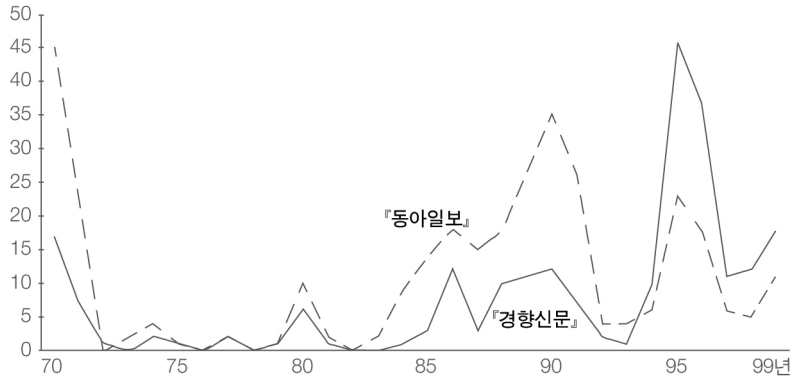
전태일은 1970년 11월 13일에 분신(焚身)했다. 다음 날 일간지들은 사회면 한 구석에 단신으로 젊은 재단사의 죽음을 알렸다. 「경향신문」 기사는 다음과 같았다.

13일 하오 2시쯤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평화시장 앞길에서 평화시장 재단사 친목회원 전태일 씨(23·서울 성북구 쌍문동 208)가 휘발유를 몸에 끼얹고 분신자살을 기도, 국립의료원을 거쳐 성모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날 하오 10시쯤 숨졌다.

전 씨는 “기업주는 근로기준법을 지켜 달라. 15, 16세의 어린아이들이 일요일도 없이 하루 16시간씩 흑사당하고 있으니 당국은 이런 사태를 시정해 달라”고 호소, 미리 준비했던 휘발유로 책을 태우려다 제지를 받고 자기 몸에 불을 지른 것이다. (“흑사 등 항의…분신” 경향신문 1970/11/14)

당일 사회면에서 가장 크게 배치된 기사는 서울시 대중목욕탕의 목욕값이 어른 60원, 어린이 40원에서 어른 80원, 어린이 50원으로 대폭 오른다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일간지들이 1970년의 남은 한 달과 1971년

〈그림 1〉 전태일이 언급된 일간지 기사의 수(1970~1999년)



자료: 2017년 7월 10일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http://newslibrary.naver.com>)에서 '쫄쫄이', '전태일'로 검색하고 동명이인을 제외. 사실 "어느 재단사의 죽음"(경향신문 1970/11/16)과 같이 '전 모 씨'로 표기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

한 해 동안 엄혹한 노동현실을 비판하는 사실과 칼럼 몇 편을 추가했을 뿐, 전태일의 죽음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

〈그림 1〉은 분신 사건을 보도한 1970년 11월 14일자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 중 전태일의 이름이 한 번이라도 거론된 글을 모두 센 것이다. 전태일을 언급하는 기사는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하다가 1990년대에 급증했다. 1970~1980년대가 정권의 언론 검열이 일상적으로 자행되던 시기였음을 감안하면, 당시 대중이 받았던 충격을 일간지가 고스란히 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1972년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 전태일이 거의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의도적인 지우기'로 해석할 수도 있다. 전태일이

〈표 1〉 「경향신문」 기사에서 전태일이 언급된 맥락(1970~1999년)

시기	1970~1971년	1972~1979년	1980~1987년	1988~1993년	1994~1999년
기사 수	24	7	26	43	134
주요 특징	사건	잡복	기억 투쟁	문화적 재현	재현의 확장
주요어	분신	추모식	이소선 전태일 기념사업회	『전태일평전』 전태일문학상 전태일추모집회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언급된 횟수로 따졌을 때, 노동운동 조직의 팸플릿이 상한선이라면 일간지의 기사는 하한선에 가깝다.

편의상 기사 수가 적은 「경향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어떤 맥락에서 전태일의 이름이 등장했는지 살펴보자. 1970년 11월 14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경향신문」 기사에서 전태일이 언급된 맥락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우선 분신 보도 이후 후속 기사가 몇 차례 등장한 것은 장례식과 추모식 때문이다.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은 아들의 유지를 받들어 노동조건이 개선될 때까지 시체 인수를 거부하다가 노조 결성 지원 등 8개 요구 사항을 노동청장이 공개적으로 약속한 다음에야 장례를 치렀다. 장례식 이후에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에서 추모식과 시위가 함께 벌어져 기사화되었다. 1970년에 17개, 1971년에 7개의 기사가 실렸는데, 기사 24건 중 21건이 사회면의 단신이었다. 평화시장 피복상가 노조가 결성되었고, 정치인 김대중이 유족에게 조위금을 냈으며, 모방 자살기도가 한 차례 있었다. 1971년 4월 20일에는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

이 기사화되었는데, 간첩활동의 예로 전태일 분신자살사건 보고가 언급되기도 했다.

기사 수는 1972년에 1개, 1973년에 0개로 줄어들었다. 1972년부터 1979년까지 7개의 기사에서 언급될 뿐인데, 문인·지식인 간첩단, 학원 침투 간첩단의 ‘범죄 내역’에서 2번,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외부 세력(도산업선교회)의 ‘불순한 행사’에서 1번 이름이 등장했다. 기사 2건은 전태일 르포를 쓴 작가(박태순)의 신작소설 소개였고, 사설(“노동행정의 새 바람”)이 1건, 추모예배 단신이 1건이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 이후 노동자, 학생들의 시위가 크게 늘어났다. 1980년부터 1987년까지 26개의 기사에서 전태일이 언급되었다. 이 시기의 기사들에서는 2개의 주요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과 ‘전태일기념사업회(전태일기념관 건립위원회, 전태일기념관)’가 전태일이라는 이름을 다시 끌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26개 기사 중 이소선 관련이 7개, 전태일기념사업회 관련이 10개였다. 그 외에는 추모 시위가 7개, 동생(전태삼, 전순욱) 기사가 2개였다.

고인의 집을 방문한 손님에게 풀빵을 사서 대접하던 이소선은 1980년대에 ‘노동자들의 어머니’로 발돋움했다. 1980년 한 해만 봐도 평화시장 피복노조 농성 참여, 사북탄광 노동항쟁 조사, 이화여대에서 노동문제 강연 등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1981년 2월 11일 기사에서는 피복노조 농성 조종 혐의로 추가 구속된 3명 중 한 명이었으며, 1986년 7월 28일 기사에서는 범정부폭죄로 2~3년이 구형된 5명에 속했다. 시위 현장마다 빠지지 않는 재야 인사 이소선에 ‘전태일의 어머니’라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1981년 12월에 ‘전태일기념관 건립위원회’가 발족되었고, 1983년 7월에 전태일기념관 건립위원회를 저자명으로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이 출간되었다. 건립위원회는 1984년 8월에 ‘전태일기념사업회’로 개칭했고, 1985년 8월에는 전태일기념관(사무실)을 개관했다. 전태일기념사업회도 이소신 못지않게 활발한 활동으로 전태일의 이름을 다시 불러내었다.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은 불온서적으로, 전태일기념관은 노동자와 학생들의 시위 장소로, 전태일기념사업회는 불순 노동단체로 기사에 등장했다.

한편 1988년부터 1993년까지 43개의 기사는 전태일에 대한 기억이 다양한 문화적 재현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정치적 민주화를 쟁취한 이후 전태일에 대한 기록은 불온서적 혐의를 벗었다. 1987년 10월 19일 기사에서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은 판금 해제 도서로 언급되었다. 1988년 5월 31일 기사는 ‘전태일 문학상’의 제정을 알린다. 이후 해마다 전태일 문학상 수상자가 지면에 등장하고 수상 작가들의 후속 작업마다 전태일이 입에 올랐다. 이 무렵 ‘폭력시위’ 대신 ‘평화대행진’이 기사화되기 시작했다. 1988년 11월 13일에 열린 18주기 추모 및 노동자대회에서는 수만 명이 연세대학교에서 국회의사당까지 평화롭게 행진했다.

1990년에는 20주기를 맞이하여 추모 열기가 한층 더 뜨거워졌다. 1970년대부터 불렀던 ‘전태일 추모가’뿐만 아니라 ‘그날이 오면’, ‘전태일 민중의 나라’ 같은 노래들이 불리기 시작했다. 놀이패 한두레는 마당극

〈불꽃처럼 살아〉를 추모 공연으로 올렸다. 11월 11일에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주기 추모 전국노동자대회는 경찰의 원천 봉쇄로 장소를 옮겨 고려대학교에서 열렸다. 1990년 12월에 이소선의 자서전 『어머니의 길』이 출간되었고, 1991년 1월에는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이 『전태일 평전』으로 재출간되면서 비로소 조영래 변호사를 저자로 밝혔다. 『전태일 평전』은 그해 서울 사회과학서적상협의회가 전국 20여 개 인문사회과학서점과 함께 선정한 ‘신입생을 위한 교양도서 20선’의 첫 머리에 올랐다. 고은이 1990년 10월부터 1996년 3월까지 「경향신문」에 연재한 자전적 소설 『나의 산하 나의 삶』에서도 전태일은 14회 언급되었다.

그러나 상황이 한순간에 달라지지는 않았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전태일에 대한 재현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정부는 문익환 목사의 방북 사건,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사건 등을 빌미로 공안정국을 조성했다. 1989년 11월에 전태일기념사업회가 사노맹과의 관련성을 의심 받아 압수수색을 당했고, 1990년 5월에는 전태일의 동생 전태삼이 1987년 전경 구타 혐의로 뒤늦게 구속되기도 했다. 1991년 4월에는 학계, 문단, 법조계 인사 1,128명이 ‘신입생을 위한 교양도서 20선’에 대한 출판 탄압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1991년 4월 강경대 폭행치사 사건 이후 한 달 넘게 격렬한 시위정국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1991년 5월 투쟁의 열기는 그해 6월 3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태로 학생운동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급격히 사그라졌다.

1994년에 한국 사회는 김일성 사망(7월 9일), 박홍의 주사파 발언(7월

18일) 등을 거치며 매카시즘에 시달리고 있었다. 엄혹한 분위기에서 전태일기념사업회와 영화 제작사 ‘기획시대’는 전태일에 대한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전국민 모금 사업을 벌였다. 전태일이란 이름은 1994년부터 1999년까지 6년 동안 그 전 24년 동안 등장한 횟수(100회)보다 많은 134회 언급되었는데, 134회 중 79회가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과 관련된 것이었다. 특히 1995~1996년의 83회 중에는 76회가 영화에 대한 기사였다. 대중을 겨냥한 상업 영화로 재현이 확장되면서 전태일에 대한 담론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었고, 특정한 담론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되었다.

3. 전태일 담론의 변화

전태일의 죽음이 한국 사회에 준 충격은 일간지 기사에 드러난 것보다 컸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대학생들이 추모식을 열고 정부에 항의하기 시작했다. 열흘 후 종교인들이 추모예배를 열며 합류했다. 노동쟁의는 청계피복노조를 넘어 전국의 노동자로 확산되었고, 이듬해인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노동환경 개선이 주요 공약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패배한 후, 긴 세월 동안 전태일에 대한 기억과 재현은 일간지 기사에 등장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이행될 수밖에 없었다. 해마다 모란공원 묘지, 노조 사무실, 노동교실, 집회 등에서 조출한 추모식이 열렸다.

전태일은 마석 모란공원 묘지에 묻혔다. 묘비에는 ‘기독청년 전태일의 묘’, ‘삼백만 근로자 대표’라고 쓰였다. 이후 전태일이 노동운동의 상징이 된 것은 그의 어머니와 친구들,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 덕분이었다. 이들은 전태일의 삶을 알리고, 그의 죽음이 잊히지 않도록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 초기 기억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은 전태일 본인의 일기, 수기, 편지 등이었다. 이 글들은 나중에 『전태일 평전』의 자료가 되었으며,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돌베개, 1988)로 따로 묶여서 출간되기도 했다.

1970년대에 전태일을 기억하는 방식은 노동자, 대학생들이 몰래 돌려본 일기 복사본¹⁾과 매년 11월 13일에 열린 추모식이 거의 전부였다. 죽음 이후 여러 대학에서 추모식이 열렸고 추도사가 낭독되었다. 1970년 11월 20일 서울 시내 각 대학 학생회 일동의 조사와 같은 해 11월 25일 추도예배 참배자 일동의 추념사는 ‘전태일 선생’을 기리며 “선생은 죽지 않았다.”라고 외친다. 그의 뜻을 계속 이어갈 것을 다짐하는 것이 추도사의 핵심 주제이다. 1970년 12월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 사무총장의 글에

1) 전태일의 일기는 1970년대에 복사물 형태로 대학가를 떠돌며 대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1973년 10월 유신 반대 시위가 한창이던 때에 서울대 경영학과 3학년 학생이었던 문성현은 취업과 학생운동 사이에서 갈등하며 도서관에 앉아 있었다.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전공서적 위에 복사물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누군가 일부러 두고 간 전태일의 일기 복사본이었다. “나에게 대학생 친구가 한 명 있었더라면…….”이란 구절에 사로잡힌 문성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학생운동에 투신했다(문성현 2010, 96-97).

서도 전태일은 ‘스승’으로 불린다. 대학생에게 전태일은 잠든 정신을 일깨워준 선생이었다.²⁾

1977년 9월 9일 청계피복노조가 발표한 결사투쟁 선언에서도 전태일은 노동자의 선생으로 호명된다. “7년 전 평화시장 앞길에서 우리의 단결된 투쟁을 호소하며 젊음을 불사른 전태일 선생의 위대한 투쟁 정신을 받들어” 항쟁에 나설 것을 다짐한다. 전태일은 노동자와 대학생에게 있어서 ‘앞서 간 사람’이다. 그러므로 1970년대뿐만 아니라 1980년대의 추도사들 역시 “뒤를 따른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전태일은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대학생에게 늘 선생이었고 노동자에게도 동지이자 선생이었던 것이다.

학생이나 지식인, 종교인이 전태일을 선생이라 호명하는 데 비해 친구나 동료의 경우 ‘동지’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삼동친목회, 청계피복노조 노동자의 추도사에서 전태일은 ‘동지’이자 ‘영원한 벗’으로 기억되었다. “동지시여”, 혹은 “동지님!”으로 시작하는 추도사들 역시 전태일 동지의 ‘가르침’을 강조하며 “용기를 주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약속합니다” 같은 말로 약해지려는 자신을 추스르고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기회로 삼는다. 여전히 투쟁의 한복판에 서서 전태일 정신을 계승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비공식적인 추모식이 아니라 공식적인 추모 행사는 분신 이후 14년

2) 분신 사건 직후 학생운동 세력의 대응에 대해서는 유경순의 정리를 참조할 수 있다(유경순 2011, 356-357).

만인 1984년에야 서울시 종로구 연동교회에서 최초로 열릴 수 있었다. ‘열사’라는 표현도 이 무렵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1984년 11월 30일 분신한 박종만은 전태일 이후 최초의 노동자 열사로 불렸으며, 김태웅 열사(1986년), 변형진 열사(1986년), 박영진 열사(1986년)의 죽음이 뒤를 이으면서 열사란 용어가 일반화되었다. 이전까지 전태일의 죽음에 ‘부활’, ‘인간 예수’ 등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는 재현이 일반적이었다면, 1984년 이후 노동운동의 투사와 같은 상징적 의미가 부여되었다(김원 2015, 106-107).

신병현은 1970~1980년대에 노동운동에서 이루어진 전태일 재현의 특징을 <표 2>와 같이 정리했다.

<표 2> 전태일 애도 작업에서 드러나는 담론 및 재현의 특징

시기	시기적 특징	애도 장소	애도 작업자	호명 방식	담론의 특징	재현의 특징
1970	민주화운동 선거 국면	장례식장 교정	학생	선생	부활, 각성	엘리트주의 웅변
1971~ 1974	청계노조 활동	모란공원	친구	벗, 동지	지식, 지혜	죄의식 책임감
1975~ 1976	노조 탄압 노동교실	새마을 노동교실	제2세대 스토리텔러	동지, 선배	지식, 의식화	전태일 정신의 스토리텔링
1977~ 1979	내부 갈등 노조 탄압	모란공원	친구	동지, 선배	지혜, 분열 진정성	의미 전유 경쟁
1980~ 1986	법외 노조 투쟁	모란공원 거리 명동성당	제2세대/ 민주화운동	선생, 열사	민주화 행동주의	수사학 엘리트주의
1987~ 1990	노동자 대투쟁	노동법개정 투쟁대회	민주노조운동	열사 (동지, 선배)	민주노조 부활	신화화

주: 신병현(2011, 33)의 <표 1> 인용

1970년대에 학생, 지식인, 동료 노동자들이 선생, 동지, 선배 등 서로 다른 호칭을 부여하며 상징투쟁 양상을 보였다면, 1980년대 들어 점차 ‘전태일 열사’라는 호칭으로 합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1988년 11월 13일에 연세대학교 노천강당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노동악법 개정 전국노동자대회’는 전태일을 노동자의 상징이자 노동열사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한 기점으로 볼 수 있다. 이후 대부분의 노제가 “전태일 열사여”로 시작될 정도로 전태일은 열사의 대표가 되었다(김원 2015, 107-108).

그런데 열사로 호명하는 작업이 전태일을 막연하게 신화화하는 효과를 낳는다면, 스토리텔링은 본격적으로 전태일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재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1975년 5주기, 1976년 6주기 전태일 추도식은 새마을노동교실에서 열렸는데, 전태일 수기가 낭독되었고 전태일의 삶과 죽음에 대한 모친 이소선 여사의 강연이 이루어졌다. 죽음 이후 몇 년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전태일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시작된 것이다(신병현 2011, 24-25). 전태일의 수기, 어머니의 회고, 친구들의 증언 등이 모여서 차츰 특정한 형태의 ‘전태일 이야기’를 형성하게 된다.

전태일 열사의 삶에 대해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조영래 선배가 쓴 『전태일 평전』 하나만으로도 족하다고 생각합니다(문성현 2000, 321).

조영래가 쓴 『전태일 평전』은 다양한 전태일 이야기 중에 가장 권위

있는 텍스트라고 볼 수 있다. 조영래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수배를 당하여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전태일의 일대기를 대학노트에 뽁뽁하게 써 내려갔고, 1976년에 원고를 완성했다. 유신정권 하에서 출간할 수 없었던 원고는 일본에서 먼저 소개되었다. 이 책이 1983년에 국내로 역수입되어 저자의 이름을 감춘 채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으로 출간되었다. 1991년에 나온 개정판은 더 이상 ‘어느 청년 노동자’ 같은 우회적 표현을 쓰지 않고 『전태일 평전』으로 제목을 바꾸었다. 저자 소개도 ‘전태일기념관건립위원회 엮음’에서 ‘조영래 지음’으로 바뀌었다.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조영래는 개정판 발간을 며칠 앞두고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전태일 평전』은 지식인의 관점에서 전태일 이야기를 간결하게 정리하여 명료한 담론을 구성해냈다. 평전에서 조영래는 전태일에게 열사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는다. 1970년대 중반에 쓰였기에 아직 열사라는 호칭이 일반화되기 전이기도 하지만, 평전에서 전태일은 그저 평범한 한 명의 청년 노동자다. 열사나 노동 투사가 아닌 그저 ‘인간’으로 그려진다.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사람은 누구인가?

전태일(全泰壹).

평화시장에서 일하던, 재단사라는 이름의 청년 노동자.

1948년 8월 26일 대구에서 태어나,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시장 앞 길거리에서 스물둘의 젊음으로 몸을 불살라 죽었다.

그의 죽음을 사람들은 ‘인간 선언’이라고 부른다(조영래 2009, 8).

그저 인간답게 사는 것이 목표인데 왜 스스로 죽어야 했는가? 평전은 전태일의 죽음을 ‘가장 진실된 삶’의 어쩔 수 없는 결과로 그린다. 저임금에 혹사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먼지구덩이 속에서 하루 열여섯 시간을 노동해야 하는 어린 여공들에게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구’가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인간의 생명은 고귀한 것이라고 고발하기 위해서 전태일은 역설적으로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조영래 2009, 8).

나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감정에는 약한 편입니다. 조금만 불쌍한 사람을 보아도 마음이 언짢아 그날 기분은 우울한 편입니다. 내 자신이 너무 그러한 환경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 전태일의 수기에서 (조영래 2009, 12).

조영래의 서문이 끝난 후 전태일의 어린 시절을 서술하기 전에 삽입된 위의 제사(題詞)는 전태일의 죽음이 혁명이나 거창한 사회 변혁의 이념 때문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소박한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예고한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1996년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평전으로는 처음으로 출간된 위기철의 『청년 노동자 전태일』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전태일은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니야. 그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다정한 이웃 같은 사람이야. 싱글싱글 웃는 얼굴로 “친

구야, 반갑다!” 하고 어깨를 툭 쳐 주는 사람.

하지만 전태일은 거울 같은 사람이야. 거울 앞에 서면 우리 모습을 비춰볼 수 있잖니? 콧등에 코딱지가 붙었는지,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었는지, 눈가에 눈물 자국이 얼룩덜룩한지 알 수 있잖니? 그래, 전태일은 그런 사람이야. 얼굴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뻔히 비춰볼 수 있도록 아주 깨끗한 거울을 내미는 사람(위기철 2005, 6-7).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부각되는 열사의 모습, 영웅의 이미지와 달리 평전에서 그려지는 전태일은 이웃에 살고 있는 평범한 청년 노동자의 모습이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사람’이지만 맑고 투명한 거울과 같아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한다. 이와 같은 담론 구성에는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의 역할도 컸다. 이소선은 “태일이는 사람을 참 좋아했어야. (중략) 어느 부모에게 자식이 열사겠냐. 그냥 아들이야. 태일이는 열사도 투사도 아닌 사람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야.” 하며 전태일을 노동열사보다 단순히 ‘사람을 사랑한 사람’으로 보이주기를 바랐다(오도엽 2008, 286-287).

그러므로 『전태일 평전』은 다양한 ‘전태일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과 동시에 전태일 담론의 구성에 있어서 새로운 한 축을 만드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전태일 선생, 동지, 열사의 이미지가 노동운동의 상징으로 구성되었다면, 평전 이후 거울처럼 진실한 삶을 산 청년의 이미지가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러한 표상은 영화를 거치면서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표현으로 고착

된다. 「경향신문」 기사 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전태일에 대한 문화적 재현은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권의 책이 이미 있었지만, 영화의 파급력과 비교할 수 없다.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은 1995년에 극장 개봉하여 전국에서 70만여 명의 관객을 끌었고 그해 흥행 순위 5위에 올랐다. 감독은 박광수, 시나리오를 이창동, 김정환, 이효인, 허진호가 박광수와 공동 집필했다. 제작비 15억 원 중 일반인 모금이 2억 5,000만 원을 차지했다.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전태일이 아니라 글쓰기로 전태일을 재현하고 있는 김영수라는 지식인이다. 김영수의 내레이션으로 영화가 시작된다.

1975년, 많은 사람들이 민청학련 사건 또는 인혁당 사건으로 교도소에 갇히거나 사형을 앞두고 있었다. 어디에도 희망의 빛은 보이지 않았다. 그 무렵 수배당하고 있던 나는 한 노동자의 얘기를 글로 쓰고 있었다. 전태일. 5년 전 자신의 짧은 인생을 살다 간 그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은 벌써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나는 멀리 있는 봄을 기다리듯 그를 생각하고 있다.

김영수라는 인물은 『전태일 평전』을 쓴 조영래를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전태일 평전』과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의 가장 큰 차이는 재현에 대한 태도이다. 『전태일 평전』은 지식인 관점의 재현이라는 특징을 최대한 감추려고 애쓴다. 조영래는 평전이 지식인 취향으로 쓰인

것을 안타까워했으며, 나중에 누군가 노동자의 시각과 언어로 다시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민종덕 1992, 243). 또한 전태일의 분신 이후 연이은 죽음을 보면서 행여 평전이 그러한 죽음들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나 자책하기도 했다(도서출판 돌베개 편집부 2009, 330).

그런데 영화는 전태일을 재현하는 지식인을 앞세워 전태일에 대한 영화가 아니라 전태일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영화임을 거침없이 드러낸다(조윤주 2007, 111). 평전의 ‘청년 노동자’에 관찰자의 시선이 개입하여 ‘아름다운’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영화는 전태일의 삶과 죽음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영화를 기대한 관객이라면 어리둥절할 만한 형식으로 전개된다. 도피 중인 김영수와 전태일의 이야기가 두 개의 축을 이루며 전개되는데, 전태일 이야기는 상당 부분 흑백 영상으로 처리된다.

『전태일 평전』이 전태일을 탈신화화하고 진정한 삶을 추구한 노동자의 인간 선언이라는 담론을 구성한다면,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전태일을 탈역사화한다. 박광수 감독은 전태일의 죽음을 압축적 근대화에서 빚어진 정치적 억압, 계급 갈등의 결과라기보다 종교적 수난에 빚대면서 전태일을 혁명적 투사가 아니라 ‘아름다운’ 내면의 소유자, ‘아름다운 청년’으로 재현한다(문재철 2007, 52-53). 영화는 전태일이 ‘노동자의 전태일’, ‘운동권의 전태일’에서 ‘국민의 전태일’로 거듭 나는 계기가 되었지만(이종은 2007, 72), 국민의 전태일은 국민 모두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정치적 급진성이 지워지고 삶의 상당 부분이 탈각된 인물일 수밖에 없다.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이후 전태일의 탈신화화, 탈역사화는

전태일 재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었다. 문화상품을 통한 재현은 2000년대 이후로도 지속되었고 형식도 다양해졌다. 한 예로 『너는 나다』(2010)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40주기’를 맞아 4개의 출판사(레디앙, 후마니타스, 삶이보이는창, 철수와영희)가 공동 기획한 책인데, 책의 목표가 전태일을 역사적 인물로 화석화하는 것을 거부하고 힘겨운 삶을 이어가는 우리 시대의 전태일을 응원하는 데 있다. 기획 의도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은 전태일의 동명이인들을 인터뷰한 내용이다. 손아람은 평택의 대학생 전태일, 인천의 유통업자 전태일, 부산의 극장 안내원 전태일, 전주의 고시생 전태일, 이름 때문에 줄지에 ‘더러운 청년’으로 불리는 거제의 배선공 전태일의 삶과 평화시장 재단사였던 전태일의 삶을 교차시킨다(손아람 외 2010, 14-60). 이 책에서 여러 화자들이 재현하는 전태일 역시 투사나 열사가 아닌, ‘이웃을 사랑한 형, 오빠’, ‘사람을 너무나 사랑한 사람’이다.

4. 진정성 담론의 역설

1970년 11월 13일 이후 10여 년 동안 언론에서 전태일은 ‘이름을 말해선 안 되는 존재’였다. 그는 ‘전 모 씨’로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일간지 사설에 간혹 등장했고, 사회면 단신 기사들에서는 불순 노동단체의 행사, 간첩행위 사례 등과 연관되어 간혹 이름이 언급되었다. 1975년 무렵을 배경으로 삼은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의 내레이

선에서 드러나듯이 분신 이후 몇 년 지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벌써 잊어버리고 있었다.

언론에는 별로 등장하지 못했어도 전태일의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한 치열한 투쟁이 이어졌다. 1970년대에는 모란공원 묘지 앞이나 노동교실에서 작은 추모식을 열 수밖에 없었지만, 1980년대 중반에 이르면 장소를 빌려 공식적인 추모제를 열고 집회에서 ‘전태일 열사’를 당당히 외치기도 했다. 민주노조운동의 성장과 함께 전태일에 대한 기억의 정치도 성장하여 마침내 전태일의 화려한 부활을 알린 1988년 전국노동자대회 이후에는 매해 전국노동자대회에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이라는 구호를 붙이게 되었다.

그러나 1994년 전국노동자대회의 명칭을 둘러싸고 전국노조대표자회의(민주노총 건설 이전 전국 노조의 회의체 조직)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이라는 말을 빼고 간단히 ‘전국노동자대회’로 부르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제조업이 아닌 일반 사무직 노동자에게는 전태일 열사가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사무직과 대공장 중심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전태일은 신화에 가까운 존재일 뿐, 과거와 같은 의미를 갖지 못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문제는 노동자대회 전야제와 전태일상(賞)에서 주로 다루게 되었다(문성현 2000, 333-334).

노동자가 계승해야 할 전태일 정신은 무엇일까? 민중덕은 전태일 정신을 다섯 가지, ① 자기 각성, ② 자기 결단, ③ 불의에 대한 비타협, ④ 단결된 투쟁, ⑤ 인간 해방으로 정의한다(전태일기념사업회 1988,

26-29). 그러나 전태일에 대한 여러 문화적 재현들은 전태일 정신을 따로 얘기하지 않는다. “전태일은 어떤 사람인가? 전태일의 삶과 죽음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같은 질문에 대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간결하고 명료한 답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한마디로 답하게 된 후, 단결된 투쟁, 인간해방 같은 메시지는 사라졌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러한 대의는 이미 상당 부분 충족되었다고 여길 수도 있다.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이후 전태일에 대한 문화적 재현들은 열사나 투사가 아닌, 초등학생에게도 귀감이 될 만한 아름다운 청년의 이미지를 강조한다. 노동자와 대학생 일부가 몰래 들여보던 복사물과 달리 다양한 문화상품을 통한 재현은 특정한 헤게모니 담론을 형성하게 되는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전태일에 대한 헤게모니 담론은 노동열사가 아니라 아름다운 청년의 마음으로 구성된다. 이때 ‘아름답다’는 수식어는 물론 외모를 가리키지 않는다.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정신 또는 삶 자체가 아름다웠다고 얘기할 수 있다. 전태일재단 홈페이지에 적혀 있듯이, 우리에게 전태일은 공식적으로 ‘너무나 착한 사람’, ‘한없이 성실하고 진지한 사람’, ‘온 몸으로 사랑을 실천한 사람’으로 기억된다.³⁾

아름다운 청년의 마음은 넓게 보면 휴머니즘에 속하며,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면 1990년대 한국 사회의 주요한 정조인 ‘진정성(眞正性)’과 연관 지을 수 있다. 김홍중은 진정성을 자신의 참된 자아를 실현하

3) 전태일재단(<http://www.chuntaeil.org/?r=home&c=1/2/4>), 2017년 9월 10일 검색.

는 것을 삶의 가장 큰 미덕으로 삼는 태도로 정의하면서 한국 사회의 1980~1990년대를 ‘진정성의 시대’, 2000년대 이후를 ‘생존주의의 시대’라 부르며 구별한다. 진정성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형성되어 이른바 386 세대의 세대의식을 장악한 윤리적 이상을 가리키는 말이다(김홍중 2009, 18-19). 『전태일 평전』을 쓴 조영래,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의 시나리오를 쓴 박광수, 이창동, 김정환, 이효인, 허진호는 386세대의 대표적인 지식인들로서 그들의 이상을 전태일 재현에 투영했다고 볼 수 있다.

윤평중은 테일러(C. Talyor) 정치철학의 핵심 용어인 ‘authenticity’를 ‘자기 진실성’으로 번역한 것에 반대하며 ‘진정성’을 적절한 번역어로 제시하는데, 이때 한자 표기는 ‘眞情性’이 아니라 ‘眞正性’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후자로 표기할 때에 내면의 진실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까지 포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윤평중 2003, 250). 김홍중은 윤평중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적 측면과 공적 측면을 함께 아우르는 말로 진정성(眞正性)을 정의하고, 이를 다시 ‘윤리적 진정성’과 ‘도덕적 진정성’으로 구분한다. 윤리적 진정성이 개인의 내면에 충실한 ‘윤리’라면 도덕적 진정성은 사회와의 공적 관계에 충실한 ‘도덕’이기 때문이다(김홍중 2009, 36).

그러므로 진정성은 ‘진정한 나’를 찾는 윤리와 ‘좋은 사회’를 추구하는 도덕이 결합된 마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불길 속에서 전태일이 외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구호는 윤리와 도덕이 결합된 진정성의 예를 보여준다. 그러나 진정성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무엇보다도 분신 자살이다. 요절(夭折)은 진정성을 추구하는 삶에서 이상화되며, 특히 분신 자살은 진정성의 정점에 존재하는 절대적 자기 파괴의 행위로 볼 수 있다(김홍중 2009, 38-39). 1980~1990년대를 386세대가 진정한 나로서 좋은 사회를 추구한 진정성의 시대로 파악한다면, 전태일은 요절한 노동자, 학생, 재야인사 등의 선두에서 진정성을 선택한 인물이다.

오늘날 전태일은 더 이상 노동운동의 상징이 아니라 아름다운 청년으로서, 진정성의 표상으로서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전태일에 대한 공식 기억과 재현을 장악한 헤게모니 담론을 ‘진정성 담론’으로 규정한다. 진정성 담론의 헤게모니는 노동자의 전태일을 넘어서 국민의 전태일이 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2010년 이후 전태일 이야기가 8종의 어린이책으로 출간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강경한 노동열사가 아니라 누구보다 진정성 있는 삶을 산 위인으로 그려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특정한 담론의 헤게모니 효과는 재현의 의미를 축소하고 획일화하는 문제를 낳는다. 전태일을 진정성의 표상으로 고착시킬 때 누구에게나 친근한 인물이 되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전태일의 다양한 면모를 간과하게 만드는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기억 투쟁에서 처음 등장했던 ‘선생’의 이미지가 사라져버린다. 진정성 담론이 끊임없이 배척한 열사 이미지는 말할 것도 없다. 전태일에 대해 ‘말해야만 하는 것’을 취사선택함으로써 ‘말해도 되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것’으로 바꾸어 억압한다(조윤주 2007, 117-119). 짝사랑의 괴로움, 당대의 가부장

주의와 온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젊은이의 치기 어린 모습,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은 욕망, 양심적인 기업가가 되고 싶어 하거나 소설을 쓰고 싶어 한 다양한 면면이 진정성의 굴레에 갇혀 ‘말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 버린다.

여러 권의 책, 공연, 음악 등으로 다양한 문화적 재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진정성 담론 안에서 재현의 양상은 늘 비슷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진정성 담론이 헤게모니를 장악하더라도 기억의 정치가 끝난 것은 아니다. 헤게모니 담론은 도전을 받기 마련이므로 대항 기억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결국 다양한 재현이 다시 경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재현의 획일화 문제는 새로운 관점의 재현을 시도할 때 비로소 해결할 수 있다. 386세대의 지식인들이 취사선택한 ‘말해야만 하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말해도 되는 것’을 자유롭게 재현하는 새로운 평전, 영화가 등장해야 한다.

조영래가 과제로 남겨두었던 노동자 관점의 재현도 아직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사회과학의 입장에서는 독학한 ‘사회과학자’로서 전태일을 재현하는 작업도 시도할 만하다. 이종영은 사회과학에 대해 아무런 공부도 하지 않은 전태일이 자신의 삶에서 이론을 발전시켜 헤겔과 마르크스를 넘어서고 있다며 높게 평가하기도 한다(이종영 2013, 282-284). 수기에서 드러난 이론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실증 연구를 위한 노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태일은 열악한 노동환경을 알리기 위해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사한 내용이 신문에 기사화되어(“골방서 하루 16시간 노동” 경향신문 1970/10/07),

잠시나마 개선 조치에 기대를 걸기도 했다.

그런데 진정성 담론의 문제는 단순히 재현의 다양성이 침해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전태일이 탈신화화, 탈역사화되고 진정성의 표상으로 확립된 순간, 기억 투쟁과 기억의 정치는 일정 정도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지만 또 다른 논란이 시작되었다. 진정성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고 누군가에게 진정성이 ‘있다, 없다’를 두고 끊임없이 논쟁하는 현실에서 전태일의 진정성은 이제 입증해야 할 가치가 된다. 진정성은 오로지 타인이 평가하고 인정하는 가치라는 특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진정성의 증명’이라는 과제를 동반하며 이데올로기적 도구가 되기 쉽다.

자유경제원은 2016년 11월 7일에 ‘전태일 생애 바로보기: 누가 전태일을 이용하는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⁴⁾ 이 세미나에서 발표자와 토론자 들은 전태일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증명을 요구했다. 전태일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청년’이기 위해서는 첫째, 도저히 견디지 못할 정도로 착취가 있었다는 점이 분명해야 하고, 둘째, 어떤 외부 세력의 개입 없이 홀로 분신을 결정하고 실행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 남정욱(대문예인 공동대표), 류석춘(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박기성(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홍수연(한국자유연합 사무총장)이 발표하고, 김승욱(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김용삼(동원대 특임교수), 조우석(미디어펜 주필), 한정석(미래한국 편집위원)이 토론을 맡았다. 세미나의 발표, 토론 내용은 「미디어펜」 기사(<http://www.mediapen.com/news/view/206146; 204966; 204245; 204258>)를 참조했다(2017년 9월 16일 검색).

발표자 중 경제학자 박기성은 전태일의 월급 2만 3,000원을 2015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282만 원 정도라고 밝히며 전태일의 죽음은 순전히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는 이타심의 발로였다고 주장한다. 희생은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비현실적인 근로기준법이 아름다운 청년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라며 당시의 노동환경을 어쩔 수 없는 문제로 치부한다. 사회학자 류석춘은 『전태일 평전』의 기록을 바탕으로 전태일의 임금이 3년 동안 10배, 6년 동안 15배 상승했음을 지적하며 전태일은 ‘착취’ 당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발표자들은 외부 세력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전태일의 진정성을 의심한다. 류석춘은 『전태일 평전』의 “대학생 친구 하나 있었으면 원이 없겠다”는 유명한 문구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는데, 전태일에게는 이미 대학 출신 노동운동가들이 접근했다는 것이다. 그는 “알린스키(S. Alinsky)의 운동노선을 따라 외부 세력이 접근한 현장의 하나가 전태일 분신사건”, “전태일은 미국 샌디에이고에 있는 이승중 목사가 교육시켰다”는 일부의 증언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전태일이 착취현황을 알리기 위해 평화시장 노동자들에 실시한 설문조사 역시 대학생의 도움 없이 설문조사를 스스로 구상했을 리가 없다고 의심하기도 한다.⁵⁾

5) 류석춘은 개정판 이전의 평전(1983; 1991)에서 석유를 뒤집어쓴 전태일에게 불을 붙여 준 친구로 묘사된 김개남(가명)을 지목하며 ‘어둠의 세력’이 분신을 기획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런데 『평전』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은 김개남으로 지칭된 김영문이 군대에 간 사이에 채록된 증언에서 생긴 오류다. 2001년 2차

이러한 의혹 제기는 전태일에 대한 공식 기억과 가장 거리가 먼 재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진정서를 제출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노동환경의 문제나 사회운동이 일어날 만한 구조적 조건의 기준은 제3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1789년 무렵에 프랑스 민중의 삶이 과연 그 전보다 훨씬 열악했는가와 같은 질문은 역사학에서 의미 있게 다룰 만하지만, 최악의 조건에서만 사회운동이 ‘자생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는 옳지 않다.

또한 전태일에게 대학생 친구나 알고 지낸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그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진정성 담론의 폐해를 드러낸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어떤 행위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생각하고 홀로 결정해야만 한다. 주변 사람들과 토론하고 연대하는 활동은 진정성을 의심받는 구실이 된다. 사실상 책도 읽어서는 안 된다. 이상한 책을 읽고 세뇌되었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외부의 도움을 의심하며 전태일의 진정성을 부정하고자 하는 주장은 달은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려는 의지의 소산이며, 어떠한 학습도 부정하는 점에서 지극히 반(反)지성주의적이다.

그런데 전태일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단순히 보수 진영의 트집 잡

개정된 『전태일 평전』에서 전태일이 직접 불을 붙인 것으로 수정되었다(임송자 2010, 323).

기로 볼 수만은 없다. 진정성 담론 자체가 마치 블랙홀처럼 고민해야 할 중요한 가치들을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밀어버리고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다툼만 남겨놓는 역설적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전태일에 대한 기억과 재현에 있어서 진정성 담론이 헤게모니를 차지하는 순간부터 ‘진정성을 증명하라’는 요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진정성 담론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와 같은 역설에 있다.

‘아름다운’이라는 말이 사실상 아무 것도 설명해주지 못하듯이, 진정성 역시 텅 빈 기표(記標)에 가까운 말이다. 포터(A. Potter)는 진정성은 실체적 속성이 전혀 없는 말이며, 진정성 여부를 가려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포터 2016, 21-22). 오늘날 진정성이란 낱말은 신문이나 방송에서 자주 접할 수 있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흔하지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⁶⁾ ‘진정(眞正)한 친구’나 ‘진정(眞情)을 털어놓다.’ 같은 예문의 ‘진정’에 대해서는 ‘참되고 올바르다’, ‘참되고 애뜻한 정이나 마음’ 같은 설명이 뒤따르지만, 진정성은 ‘진정과 관련된 성격’ 정도의 뜻으로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그런데 포터의 주장이나 사전만 보고 진정성을 단순히 허상 혹은 허위의식으로 치부해버리면 실재를 간과하게 된다. 현실에서 진정성 담론은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다. 오늘날 진정성만큼 일상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말을 찾아보기도 쉽지 않다. 「경향신문」의 기사를 검색해 보면 진

6)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 2017년 9월 10일 검색.

정성이라는 말은 1963년에 처음 등장하고 1970년대에는 한 번도 쓰이지 않았다. 1980년대에 4회, 1990년대 10년 간 50회 거론된 이 낱말이 2017년에는 한 달에 20여 회씩 등장하고 있다. “대통령의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 “인도 여행에서 삶의 진정성을 찾는다”, “이 집 된장찌개에 진정성이 담겨 있다” 같은 말을 어디서나 쉽게 들을 수 있다.

전태일의 다양한 면모를 진정성으로 단순화하는 담론 역시 진정성이란 말의 인플레이션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진정성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흔히 이야기하게 된 상황을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는 없다. “진정성이 없다”는 용례가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일간지뿐만 아니라 학술지 논문에서도 ‘진정성을 상실한 세대’, ‘진정성이 소멸된 사회’ 같은 비판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즉 2000년대 이후 우리가 진정성이란 말을 자주 접하게 된 것은 진정성의 쇠퇴,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마땅하다.

사실 ‘진정성의 소멸’과 같은 표현은 진정성만큼이나 의미가 모호하다. 진정성의 뜻을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말이 전적으로 타자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이다. 스스로 아무리 진정성이 있다고 주장해도 다수의 타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런데 이때 상호 작용은 권력 관계에 좌우되며 진정성 담론의 효과는 사회적 강자와 약자에게 다르게 적용된다. 이계삼은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두고 한국전력과 주민들이 갈등을 빚을 때 한국전력 측이 “진정성을 믿어 달라.” 하소연한 사례를 소개하며, 진정성은 강자가 마음먹은 일이 잘 안 될 때, 겸손하고 약한 척 해야 할 때 들먹이는 단어일 뿐이라고 지적한

다(이계삼 2013/08/16).

강자의 입장에서 진정성이 책임 회피를 위한 방패 용도로 자주 사용되는 말이라면, 약자에게는 사회적 발언을 위해 반드시 입증해야 할 자격 조건이 된다. 약자가 사회 문제를 고발하고 해결책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 사실 진정(陳情)을 하기 위해 진정(眞正)해야만 할 까닭은 없다. 강자든 약자든 시민의 문제 제기가 합리적이기만 하면 제도적으로 어떻게든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전태일이 행했던 수많은 노력은 모두 무시당했다. 분신으로 발언하기 전에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고 어떠한 조치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진정성 담론의 헤게모니 아래에서는 강자가 늘 진정성을 증명하라고 압박지르며, 약자는 진정성을 입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1970년 11월에 전태일의 분신 자살은 진정성을 증명하는 행위의 정점이었지만, 1991년 5월의 연이은 분신은 “죽음의 굿판을 당장 걷어치워라”(김지하 1991/05/05)라는 질타를 받아야 했다. 유서는 대필 의혹에 휩싸였다.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죽음으로도 진정성을 증명할 수 없게 되었고, 죽음보다 더 큰 고통으로 진정성을 입증해야 진정(陳情)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 단식 투쟁을 하는 사람은 뒤에서 몰래 빵을 먹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으면서도 목숨을 건 단식을 이어가야 하고, 20일로는 부족하여 40일 넘게 버텨야만 말할 자격이 간신히 주어진다. 해고된 노동자는 크레인 위에서 1년 가까이 고공 농성을 해야만 발언할 수 있다. 진정성의 증명은 약자에게 점점 더 가혹한 통과 의례가 된다.

5. 나가며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공식 기억과 헤게모니 담론의 형성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흔하다. 민주화운동에서 희생된 열사들의 명예 회복, 의문사 진상 규명 등에도 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고생이 따라야 했다. 외국의 경우 홀로코스트를 둘러싼 기억 투쟁에 40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었다. 오늘날 전태일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위인들 중 한 사람이며 1960년대의 노동운동가보다 ‘아름다운 청년’으로 기억되는데, 그의 삶과 죽음이 몇몇 개인이나 일부 집단을 넘어 한국 사회 전체에서 진정성의 표상으로 구성되는 데에도 30여 년이 걸렸다.

전태일은 동료 노동자들의 끈질긴 기억 투쟁 덕분에 노동운동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전태일이 노동운동의 상징에서 진정성의 표상으로 바뀌게 된 것은 여러 매체를 통한 다양한 재현 때문이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책, 영화 등을 통한 문화적 재현의 급증이야말로 진정성 담론이 전태일에 대한 헤게모니 담론으로 구성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진정성은 전적으로 타자에 의해 평가되는 가치이므로 진정성 담론의 헤게모니는 다양한 문화적 재현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에야 형성될 수 있다.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은 전태일을 탈신화화, 탈역사화하고 진정성의 표상으로 그려냄으로써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국민에게 두루 존경 받는 인물이 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런데 진정성 담론은 전태일의 다양한 면모를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또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진정성 담론 자체가 사회적 약자에게 발언 자격, 행위의 평가 기준으로서 진정성을 강요하는 역설을 낳는다는 점이다. 분신으로도 진정성을 입증할 수 없게 된 전태일 이후의 열사들은 더욱 가혹한 시련으로 진정성을 증명하여 사회 문제를 진정(陳情)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해야 했다. 문제 제기가 합당한지, 어떠한 해결책이 필요한지 논의하지 않고 오로지 진정성의 증명만 강요하는 부조리한 현실에서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는 전태일의 유언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공허한 외침이 되고 만다. ~~다~~

참고문헌

- 권귀숙. 2006. 『기억의 정치: 대량학살의 사회적 기억과 역사적 진실』. 파주: 문학과지성사.
- 김동춘. 2000. 『전쟁과 사회: 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 파주: 돌베개.
- 김영범. 2003. “기억에서 대항기억으로, 혹은 역사적 진실의 회복: 기억투쟁으로서의 4.3 문화운동 서설.” 『민주주의와 인권』 3권 2호. 67-104.
- 김원. 2015. “전태일 분신과 80년대 ‘노동열사’ 탄생의 서사들.” 『민족문화사연구』 59권. 105-143.
- 김홍중. 2009. “진정성의 기원과 구조.” 『마음의 사회학』. 파주: 문학동네. 17-50.
- 도서출판 돌베개 편집부. 2009. “개정판을 내면서(1990년 12월 15일).” 조영래.

- 『전태일 평전』. 서울: 아름다운전태일. 327-330.
- 문성현. 2000. “나의 노동운동과 ‘살아있는’ 전태일들.” 『역사비평』 53호. 317-338.
- 문성현. 2010. 『희망은 당신 곁에 있습니다』. 서울: 삼우반.
- 문재철. 2007. “숭고한 청년 전태일, 마인드스크린과 자유간접화법에 비친 역사의 식.” 연세대학교 미디어아트 연구소 편, 『한국 뉴 웨이브의 정치적 기억』.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33-58.
- 민중덕. 1992. “조영래 변호사의 『전태일 평전』.” 『사회평론』 92호. 242-243.
- 박숙자. 2015. “기억과 재현으로서의 애도: 『전태일 평전』.” 『국제어문』 67집. 41-69.
- 손아람·이창현·유화·조성주·임승수·하종강. 2010. 『너는 나다: 우리 시대 전태일을 응원한다』. 서울: 레디앙·후마니타스·삶이보이는창·철수와영희.
- 신병현. 2011. “민주노조운동의 전태일 애도와 재현.” 『역사연구』 20호. 7-38.
- 신형기. 2014. “전태일의 죽음과 대화적 정체성 형성의 동학.” 『현대문학의 연구』 52권. 99-131.
- 오도엽. 2008. 『지겹도록 고마운 사람들아: 이소선 여든의 기억』. 서울: 후마니타스.
- 유경순. 2011. “1970년대 청계피복노동조합 노동자와 지식인의 연대관계형성 및 상호영향.” 『한국사학보』 44호. 343-379.
- 윤평중. 2003. “공동체주의 윤리 비판: 급진자유주의의 관점에서.” 『철학』 76집. 233-261.
- 위기철. 2005. 『청년 노동자 전태일』. 파주: 사계절.
- 이임하. 2010. 『전쟁미망인, 한국현대사의 침묵을 깨다: 구슬로 풀어 쓴 한국전쟁과 전후 사회』. 서울: 책과함께.
- 이종영. 2013. “『전태일 평전』에 대하여.” 『진보평론』 55호. 282-297.
- 이종은. 2007. “일촉즉발, 도래청년: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과 1990년대 문화정

- 치학.” 연세대학교 미디어아트 연구소 편, 『한국 뉴 웨이브의 정치적 기억』,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59-77.
- 임송자. 2010. “전태일 분신과 1970년대 노동·학생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5호, 319-360.
- 전진성. 2006. “기억의 정치학을 넘어 기억의 문화사로.” 『역사비평』 76호, 451-483.
- 정근식. 2005. “항쟁기억의 의례적 재현: ‘5월 행사’와 전야제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5권 1호, 5-33.
- _____. 2007. “광주민중항쟁에서의 저항의 상징 다시 읽기: 시민적 공화주의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16권, 143-183.
- _____. 2013. “한국에서의 사회적 기억 연구의 궤적: 다중적 이행과 지구사적 맥락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13권 2호, 347-394.
- 정현백. 2010. “우리 안의 ‘전태일’, 그리고 기억의 정치.” 『시민과 세계』 18호, 219-236.
- 조영래. 1991. 『전태일 평전』, 서울: 돌베개.
- _____. 2009. 『전태일 평전』, 서울: 아름다운전태일.
- 조윤주. 2007. “말해야 하는 것, 말해도 되는 것, 말하지 못하는 것: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과 전태일에 대한 네 편의 텍스트.” 연세대학교 미디어아트 연구소 편, 『한국 뉴 웨이브의 정치적 기억』,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03-130.
- 최정운. 1999. 『오월의 사회과학』, 서울: 풀빛.
- 포터, 앤드류. 2016. 『진정성이라는 거짓말』, 노시내 역, 서울: 마티.

신문기사

- 김지하. 1991/05/05. “젊은 벗들!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조선일보」.

이계삼. 2013/08/16. “너의 ‘진정성’이 들려.” 「한겨레」.

민주화기념사업회 오픈 아카이브(<http://db.kdemocracy.or.kr>) 자료
서울시내각대학학생회일동. 1970. “추도사: 고 전태일 형 전”(등록번호: 00443434)
전태일기념사업회. 1988. 『전태일을 아십니까?』(등록번호: 00875758)

‘A beautiful young man’ Chun Tae-il and Irony of the Authenticity Discourse

Kim, Sung-eun

Hanshin University

Looking at the bust sculpture of Chun Tae-il on the bridge after his name in Cheonggye Stream and various kinds of his biographies for children, we can see that the official memory of him has been established after the long struggle of memories. Among the various cultural representations of Chun Tae-il, the film <Single Spark(The Beautiful Young man Chun Tae-il)> contributed greatly to making him a symbol of authenticity. Today, the hegemonic discourse about Chun Tae-il is represented by authenticity.

Although the authenticity discourse contributed to the popularization of Chun Tae-il, it standardized representations and didn't show various aspects of him. Therefore the memories and representations against the hegemonic discourse should be raised constantly by diverse and new viewpoints. But serious problems come from the authenticity discourse itself. Authenticity is virtually an empty signifier, but it is easy to use as an ideological tool in that it is ethics only evaluated by others. It serves as a shield for the strong to avoid responsibility and is constantly constrained to the weak as a qualification to be proved. After authenticity of 'a beautiful young man' became hegemonic, the spirit of Chun Tae-il

as a labor activist was disappeared and ‘the order to prove authenticity’ only remained.

■ **Keyword:** Chun Tae-il, Struggle of Memories, Representation, Authenticity Discourse, Proving Authenticity

투고 : 2017/10/10 심사 : 2017/10/17 확정 : 2017/11/16